

알기 쉽게 풀어보는 러시아 인증제도

EAC 인증

1 EAC 인증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별 공산품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EAC¹ 인증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재화의 규격과 위생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인증이다. 즉, 마크를 부착한 모든 제품은 기술 요구사항을 통과했으며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제품으로 인정되어 역내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고스트(GOST) 인증을 비롯 기존에 적용되었던 인증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구소련 붕괴로 인한 시대 흐름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시일이 흐른 후인 2013년이 되어서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EAC 인증이 실현될 수 있었다.

유통 추적 라벨링 시스템 '머큐리'



'머큐리'는 러 동식물위생 감독청이 관리하는 인증으로 제품의 생산, 국내 유통, 판매에 전자 인증 및 추적을 위해 도입된 정보시스템이다. 2015년 7월 13일 #243 연방법에 의거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농축수산물 및 동·식품 유지류, 곡물, 청과 가공품 등이 인증 대상이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동물성 완제품(치즈, 버터, 연유 포함)으로 확대되었고 11월 1일부터는 우유, 유제품, 빙과류 제품까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직한 제품 '데이터 라벨링(체스니 즈낙)'



데이터라벨링 (예시)



'정직한 제품'이란 뜻을 가지는 '체스니 즈낙(이하 데이터 라벨링)'은 상품 필수표기에 관한 법률로써 위조품을 비롯한 불법 유통제품의 판매를 줄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고안되었는데 제품 생산단계부터 구매까지 전체 경로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라벨링 코드는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특수한 2차원 바코드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바코드를 제품 포장에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조회할 수 있다.

2020년까지 데이터 라벨링 필수 품목으로는 권련류, 향수, 모피류, 카메라, 신발, 의류 및 속옷, 타이어 등 공산품에 한정되었으나 지난해 식품 분야로 확대되는 첫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설비 도입 및 생산 검증 등 제도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여 시장에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1일, 아이스크림 제품을 시작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사실상 12월 1일부로 전체 유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3월부터는 식수 제품 전체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데이터 라벨링 시험적용 기간으로 이를 거쳐 올해 말부터는 라벨링 적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데이터 라벨링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러시아 소비자의 4분의 3(75%)이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대다수가 본 제도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유기농식품 인증

АГРИВОЛГА



아그리볼가(우유)

Paulig



파울릭(커피)

МАУ



마이(차)

ИСТОРИЯ В БОЖИВО



이스토리아브기모보(사워크림)

유기농식품 인증

2018년 8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기농 제품 및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생산자', '유기농업' 등의 개념을 법에 도입한 문건은 해당제품의 생산·보관·유통·표시·판매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인증은 생산자가 유기농 제품 생산자 국가 등록부에 등재된 이후에 제품이 '유기농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산자 국가 등록부 작성 작업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6월 기준, 69개의 농산물 생산자가 인증받았는데 대표적인 인증업체로는 아그리볼가 주식회사, 아그로눔 사드 주식회사, 네슬레 러시아 주식회사, 파울릭 루스 주식회사 등이 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최근에는 유기농식품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법이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 식품 라벨링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환경 성능 개선 및 공식 '그린식품(친환경 식품)' 라벨링에 대한 자발적 인증이 시작된다. 2021년 6월 11일 연방법 제159호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은 다른 제품과의 분리 생산, 개선된 특성을 가진 원료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친환경 농업기술 사용, 복제 및 유전공학 기법 사용금지, 이온화 방사선, 친환경(가연성/생분해성) 포장의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제품과 광물 비료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6개의 국내 제품 품질기준(GOST)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러 품질관리청(Roskacestvo)은 그린 온실 야채와 과일 및 베리류 제품에 대한 GOST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에 친환경 제품이 산재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규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증은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보다 건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반영됨에 따라 친환경 소비 패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식품 라벨링

МЕРКДИАН



메르디안

МИРАТОРГ



미라토르그

БИОНОВО



바이오노바

СИНЯВИНСКАЯ



시냐빈스카야

작성자 블라디보스토크지사 모이시엔코 다랴

Key Point

무한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정보를 접하며 폭넓은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제품을 갈망하고 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을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제품'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로의 농식품 수출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러시아 및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에 있어 필수 인증과 더불어 제품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자발적 인증을 획득한다면 추후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모두에게 이로운 제품으로 러시아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